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0월 31일 수요일(주간) 제 341 호

나눔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금주법구

행위에 의해 도둑이 되고
행위에 의해 군인도 되며
행위에 의해 제관이 되고
행위에 의해 왕도 된다.

-숫타니파아타-

봉사하는 불교 실상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실상선원 041)734-2680 대전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 천축사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공양 때마다 '오관게' 독송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고
내 덕행으로 받기가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몸을 보호하는 약으로 알아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사찰수련회나 가서 하는 것으로 인식된 오관게(五觀偈)를 일상에서 매일 독송하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하이텔 불교동호회(대표시솝 유인자, 이하 하불동)는 지난 16일부터 '오관게 독송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온라인 신행활동을 해오고 있는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신행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회원들의 뜻이 모여 이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25일 부산 청향선원을, 27일 대부도 둥지마을을 찾은 하불동 회원들은 점심 공양에 앞서, 선원을 찾은 일반 불자와 둥지마을 아이들에게 오관게를 적은 종이를 나눠주고 함께 독송했다. 이미 하불동 산하 지역법회와 소모임은 물론 회원들의 신행 현장인 부산구치소경비교도대에서도 오관게 독송이 매일 실천되고 있다. 하불동은 오관게가 써있는 스티커와 퀸덴트 등도 제작배포해 불교계 전체의 캠페인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오관게는 공양에 앞서 부처님과 음식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공덕이 모든 사람들에게 회향되길 바라는 내용을 담은 게송이다. 즉 '이 음식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성적 질문과 '음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바르고 보람찬 일을 하기 위해 공양한다'는 서원으로 구성된 이 게송을 읊으며, 먹는 동안에도 더욱 열심히 정진하며 남에게 베푸는 자비심을 놓지 않겠다는 서원이다.

이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유 대표시솝은 부산경남지역 지부장으로 있던 97년부터 회원 3명

과 함께 오관게 독송을 개인적으로 실천해 왔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관게 독송이야 말로 신심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음식에 대한 탐심을 없애고 자비심을 키우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체득했고, 이를 널리 알리기로 서원을 세운 것이다.

"유 대표시솝은 "음식에 대한 탐심을 없애고, 그 공덕이 모든 사람에게 회향되길 발원하는 오관게는 신심을 다지는 계율이자, 일상의 청규"라며, 많은 불자들이 동참하기를 당부했다.

오종욱(취재 1부 기자)

장 군 죽 비

◇하루 1달러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 미국과 보복 전쟁은 무슨 의미. 죽음에 취해 삶을 잃어버린 21세기의 초입. (8면)

◇주고 받음에 조금의 집착도 두지 않는 것이 불교의 '보시'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자들은 생색내는 보시조차 인색하다. (9면)

◇인도 '불가촉 천민' 힌두교도들 불교로 대거 개종. 카스트의 벽을 허문 불교 본래의 평등 정신이 되살아나고 있다. (10면)

◇부산 불교계 환경·인권·복지를 위한 '청정 결사'. 건듯 남풍 불 때, 꽃 향기 같은 아름다운 세상 소식이 실려 오기를…. (23면)

승가대 보육교육원 '운영난'

신입생 격감 재원 바닥… 폐원 위기

안암학사 임대로 이전 불가피

불교계에서는 단 하나뿐인 중앙승가대 부설 보육교사교육원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현재 재정은 바닥났고, 교육원이 들어서 있는 중앙승가대 안암학사가 고시원으로 임대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9월에는 고시원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공사과실로 인해 단수와 단전이 반복되면서 몇 차례 휴강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그러나 학교나 종단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새로 보육교사교육원 실장에 임명된 자용스님은 23일 "기독교계에만도 30개가 넘는 보육교사교육원이 있고 유아선교를 위해 계속해 시설을 늘리고 있는데, 그나마 하나뿐인 시설을 방치한다는 것은 유아포교를 포기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교와 종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보육교사교육원의 심각한 운영난은 교육환경 및 관리 미비 등이 빚은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됐다. 98년 부설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몇 년간 비축한 재정을 쏟아 부었으나, 원생부족으로 1년도 안돼 문을 닫은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올해 신입생이 예년의 절반 수준인 58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달 들어 재정이 바닥을 드러냈다. 200명 정원에서 최소 100여명은 돼야 자체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입생 감소는 운영난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 셈이다. 신입생 감소는 노후한 건물 등 다른 교육원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학교나 법인(종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정상의 항목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육교사교육원은 종단의 특별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은 아직까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전 문제도 심각하다. 안암학사 뒤 보타사의 비구니 수행관으로 쓰던 건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지만, 교육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이나 시간도 여의치 않다.

보육교사교육원 관계자는 "이전이 늦어질 경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럴 경우 자칫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92년 중앙승가대가 운영해 오던 보육교사교육원은 지난해까지 1,03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대체복무 불가"

국방부 23일 입장 표명

국방부는 23일 특정종교 신도들의 집총거부에 따른 대체복무허용 주장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거부풍토를 확산시키고 특정종교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만 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대체복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자 수나 복무기간 등에서 우리와는 여건이 다르다"며 "우리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中 백림선사 조주 선차기념비 제막

한중 불교계는 선다일미(禪茶一味)의 연원이 된 화두 '끽다거(喫茶去)'의 도리를 일러준 조주(趙州: 778~897) 선사의 차 시비를 10월 19일 스님이 주석했던 중국 하북성(河北省) 석가장시(石家莊市) 백림선사(柏林禪寺, 옛 조주 관음원)에 건립했다. 앞줄 왼쪽부터 미륵사 주지 백운스님, 월간 '선문화' 회장 동광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스님,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스님, 불교춘추사 최석환 사장. (관련기사 12, 13, 22면)

중국 백림선사=김재경 기자

금강산 신계사 복원 조계종, 지표조사 실시

11월 2일부터 10일간

소실문화재 남북 공동복원의 첫 사례가 될 금강산 신계사 지표조사가 11월 2일(예정)부터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부 발굴조사단과 문화재 전문요원으로 구성된 조계종 지표조사단(단장 학담,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정책기획위원장)은 금강산 신계사에 10일간 머물며, 지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시행되는 이번 지표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그간 인도적 지원에 머물러온 남북불교교류 진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표조사와 관련 조계종 사회부 윤효원 주임은 "조계종 지표조사단은 10여명으로 구성되며, 이미 북한과 협의를 끝마쳤다"며 "현재 통일부와 조사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9일 총무원 청사앞에서 북녘동포 생활용품 지원을 위한 상차식을 가졌다.

김원우 기자

北 어린이 급식 지원 종단협, 올 동절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올해 동절기 자강도 량강도등 혹한지역 북한 어린이들에게 학교 급식품과 월동용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종단협은 앞으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 7억4천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북한에 지원키로 했다. 대북지원금 7억4천5백만원중 4억3천9백만원은 종단협 소속종단이 마련하고, 3억6백만원(전체예산의 약41%)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으로 충당된다.

대북지원 정부지정단체인 종단협은 지난 7월 통일부 인도지원국의 남북협력기금 지원 북한지원사업을 수락 받은 바 있다. 김원우 기자

"'조선불교 조계종' 재평가 작업 절실"

60주년 학술토론회

1941년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은 주체적 종단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었고, 한국불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계사 창건 91주년과 조선불교조계종 출범 60주년을 맞아 24일 조계사서 열린 학술토론회는 그 동안 '친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조선불교조계종의 '제 모습 찾아주기'가 중심주제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김광식 씨는 "조선불교조계종 출범은 일제 강점기에서 한국 불교의 주체적 종단 건설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그 동안의 부정적, 친일적 시각에서 벗어나 조선불교조계종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초대 종정과 종무총장을 지낸 한암 스님과 지암 스님에 대한 인물 연구를 발표한 박희승(조계종 총무원 기획과장) 씨도 "현대 한국불교를 이해하는 데 조선불교조계종의 바른 이해는 필수적인데도 교단의 주요 인물에 대한 연구조차 방치되어 왔다"며 "교단의 존립을 위해 일제에 협력했던 불교계의 과거사에 대한 종단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종합토론에 나선 혜봉 스님은 "현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전의 정화운동이나 조선불교조계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끄러운 역사도 엄연히 역사인 만큼 공과(功課)를 함께 살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혜봉 스님은 "학계뿐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禪 속의 묵향

석주·석정 큰스님 禪서화전

불교TV 에서는
새로운 영상포교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위성방송 실시를 앞두고
석주·석정큰스님 의 붓 끝에서
피어나는 선향으로 "禪 속의 묵향"전을
마련 했습니다.

• 석주스님(월보사 조실)

• 석정스님(종단협의회장 역임)

■일 시 : 2001.11.14(수)~11.20(화)
■주 최 : 불교텔레비전 주식회사
■후 원 : 문화관광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명원문화재단, 한국디지털 위성방송(KDB)
■장 소: 경평아트센터

btn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02-3270-3300 팩스: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 ARS(02)700-1032(한 통화에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 청 방 법 :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작품구입문의(불교TV사업부)
02-3270-3366~7